

“특별한 ‘임실 산타축제’ 즐겨요”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이행 완료

25~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서 먹거리·볼거리·공연·체험 다채롭게 진행

임실군의 대표 겨울 축제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025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펼쳐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3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높은 인기를 입증한 만큼, 올해는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인기 가수 공연을 새롭게 도입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겨울 축제로 선보인다.

이번 산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특화형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연 콘텐츠의 강화다. 산타축제 최초로 초대 가수 공연이 도입돼 개막일인 25일에는 씨야 출신 가수 이보람, 27일에는 걸그룹 라이벌과 가수 짜이가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타 페어데이, 산타 북장 선발대회, 어린이뮤지컬, 마술·버블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축제 기간 매일 운영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가족 트리 만



2025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펼쳐진다.

들기, 치즈케이크 만들기, 초코퐁듀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치즈컬링, 플로팅볼 눈싸움, 산타 썰매 체험 등 겨울 테마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겨울철 대표 체험 콘텐츠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빙어 잡기 체험장은 운영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해 더 많은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눈썰매장은 60m 길이의 6라인 대형 시설과 48m 길이 4라인 소형 시설로 구성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제장 경관 연출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치즈테마파크 치즈캐슬 앞에는 높이 10m 규모의 대형 크리스마

스트리를 중심으로 투포드 사슴 조형물과 포인제티아 장식이 어우러진 겨울 테마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겨울 풍경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먹거리 또한 지난해보다 규모와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군은 먹거리 공간을 축제장 전반으로 분산 배치해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교통과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셔틀버스를 기존 3개 코스 8대에서 14대로 증차하고, 경호요체와 모범택시를 포함한 교통전용 차량 400여량을 현장에 투입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민선 8기 공약사업' 농업인 복지 실현 위해 추진

순창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사업이 올해 완료된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40만원)와 현금(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원까지 지

임실군, 연말연시 성금 기탁 이어져

임실군은 지난 22일 임실봉황 라이온스클럽(회장 백금)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그리고 임실군 약사회(회장 박병철)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총 7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임실봉황라이온스클럽 백금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300만원을 전달하며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실군 약사회 박병철 회장 역시 200만원을 쾌척하며 "약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연말연시 성금 기탁 이어져

순창군은 지난 22일 임실봉황 라이온스클럽(회장 백금)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그리고 임실군 약사회(회장 박병철)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총 7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임실봉황라이온스클럽 백금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300만원을 전달하며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실군 약사회 박병철 회장 역시 200만원을 쾌척하며 "약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순창군은 군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 81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보건·의료, 주거, 교통 등 8개 분야 67개 항목을 조사해 군민의 삶의 질과 군정 전반에 대한 인식,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순창군이 매년 실시하는 군정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1위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군정 전반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공통항목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자신의 삶', '전반적인 지역생활', 등 주요 지표에서 순창군민의 삶의 만족도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전북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성과 가시화

남원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며, 비용 부담으로 미뤄졌던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입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의 주거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와 부대시설, 입주자 공동 이용시설, 재난·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를 통해 생활 편의와 안전을 함께 개선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들어서는 기존에 분양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 모두가 남원 시민이라는 취지에서

임대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체 재원 부족으로 보수가 어려웠던 승강기 교체도 이동 안전성을 높이고, 옥상 방수와 외벽 보수로 누수와 노후 문제를 해소했으며,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를 통해 생활 편의와 안전을 함께 개선했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48개 단지, 약 1만 2천여 세대를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협의회 제9차 회의 가져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농가와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연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협의회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를 통해 지역 곤충사육농가와 함께 상생 협력방안 모색하고, 곤충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매월 1회 운

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남원시 관계 공무원·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과, 곤충산업 관련 농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관련기업,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남원시 곤충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육성 전략과 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곤충산업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방안 △곤충차원의 식품·사료·체험·교육 분야 활용 확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판로개척 △산·학·연·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모델 구축을 위해 행정과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3일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남원시는 23일, 반다비 체육센터(이백면 이백로 333)를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 개관했으며, 개관식에는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체육인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는 지난 2023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활발친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 총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을 시행, 1층에 배드민턴과 탁구 등이 가능한 26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2층에는 소다운실, 시각탁구실, 담구장, 헬스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각종 행사, 대회 개최 시에 문제가 됐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9대에서 66대가 추가된 17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남원의 장애인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